

2023년 11월 19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107편 8~9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589(통308)장 넓은 들에 익은 곡식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시편 136편 1~26절(구약p.901)

1.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3.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4.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5.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6.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7.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8.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9.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0.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1.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2.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3.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4.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5.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6.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7.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8.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9.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0.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1.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2.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3.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4.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5.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 말씀선포 / 절망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한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수고와 눈물을 씻으시고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할 제목보다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갑자기 사회적으로나 혹은 개인적으로 예상치 못한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사람들은 보통 공포와 무기력함에 휩싸입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이 너무 큰 나머지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이러한 일들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 달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며,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인지 바로 알아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1~9절).

- “하나님께 감사하라”로 시작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로 마무리하고 있는 오늘 시편은 일명 “감사 시편”입니다. 저자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신들 중에서, 주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선언합니다. 또한 저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행하신 기적들을 찬양하는데, 이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모진 고생과 죽을 고생을 돌아보며 그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전합니다. 올 한해 우리는 마치 영적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수많은 어려움과 낙심됨의 순간순간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속에 당황하며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최선의 길로, 최고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얻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최악 된 세상에서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성령으로 인치사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모든 형편을 알고, 나를 아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모든 것을 바라보며 오직 성도는 믿음으로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2.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10~22절).

- 그다음으로 저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강한 손과 편 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으며,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기업으로 주셨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은 영원한 인자하심과 큰 능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본문 19~20절을 보면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찬양합니다. 지금 시편의 저자가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하나님이 죽이신 일을 언급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일은 출애굽 후세대가 처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입니다.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자는 이 모든 것이 전능하시며 영원히 인자하신 하나님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며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 어렵고 힘든 수많은 일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슬픔과 좌절의 시간, 과연 누가 나와 함께 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새벽기도회를 에벤에셀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에벤에

셀의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쉰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블레셋에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라고 사무엘은 선포하며 “에벤에셀”이라 했습니다. 이는 승리의 현장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럼 이러한 실패와 낙심의 현장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단지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았으며, 여호와를 찾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하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3. 현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23~26절).

- 이제 저자는 당대에도 함께하며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저자는 “우리”라는 호칭을 씀으로써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당대에도 변함없이 자기들을 돌보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들을 비천한 상태에서 건져 내시고 대적들로부터 구출해 주셨다고 노래합니다. 이 행동은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킨 사건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저자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언급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주이심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저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상치 못한 큰 고난이 찾아오곤 합니다. 바로 그때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시련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실패한 인생도, 낙심한 인생도, 고난과 고통과 수많은 일들 속에서 실망하고 낙심한 그 자녀들을 찾으시고 함께하시며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나며 함께 함으로 우리에게 한없이 채우시는 은혜를 공급받으며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해결의 실마리가 도저히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신 전능자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불변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시련도 반드시 이겨내며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 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과 가정,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382(통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 폐 회 / 주기도문